서울신문 구독

[윤기자의 콕 찍어주는 그곳] 슬픔이 기쁨에게 -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

입력 2019.03.07. 오전 10:12 기사원문

1 1

[서울신문 나우뉴스]

소록도 중앙 공원의 구라탑(求癩塔).1963년 오마도간척사업에 참여한 국제워크캠프단이 세운 탑으로 탑 상단에는 미카엘 대천사의 상이 있다

세 번 죽어야만 되는 한센병 환자의 삶. 소록도에는 단종(斷種)과 불임 시술의 현장이 그대로

“그건 이곳 규칙입니다. 환자가 건강인을 대할 때는 반드시 다섯 걸음 이상 거리를 유지해

라. 말을 할 땐 45도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p32, 1976, 문학과 지성사>

우리나라에서는 한센병을 나병(癩病), 업병(業病) 혹은 문둥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나(癩)'는 '두꺼비'의 의미도 담고 있는 데, 한센병 환자의 피부가 흡사 두꺼비 모양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예전에는 동서양을 구분할 것 없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는 물론 가족으로부터도 철저히 격리, 배척되었다. 소록도에 들어온 한센인들도 '당연히' 이름이나 고향은 숨겼다. 육지의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천형(天刑)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소록도에서는 한센인들의 단종 및 불임 시술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 한센병은 중병이라고 이름 짓기 미안할 정도로 정복된 지 오래다. 단적인 예로 한센병에 걸려도 항생제의 일종인 '리팜핀' 600mg을 단 한 번만 복용하면 체내 나균의 99.99%가 전염력을 상실한다. 또한 성적인 접촉이나 임신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으며 유전도 되지 않는다. 한센병 환자와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도 전염 위험은 240만 명 중의 1명 꼴이니 통계자체가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할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0여 명 정도의 환자가 발견되는 정도이며, 의무접종 중의 하나인 결핵 예방 BCG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라면 이런 발병 확률조차도 의미가 없어

진다고 본다. 설사 발병되더라도 복용약만으로 대개는 6개월, 최장 2년 이내 완치가 되며 흔적 조차 남지 않는다. 또한 한센병 완치환자의 경우 감염위험은 완전 소멸된 상태로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한센인들의 시간이 가득 담긴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으로 가 보자.

2016년에 세워진 한센병 박물관. 한센인들의 고통의 시간이 잘 보존되어 있다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이다. 2009년 3월 3일에는 소록대교가 개통되어 지금은 육로로도 자유롭게 연결된다. 바로 이 곳에 소록도 자혜의원(조선총독부령 제7호)이 1916년에 문을 열고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분리,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센병 환자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모멸과 강제 노동, 단종 수술 및 불임 시술을 받는 등 극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한센인들의 유품들. 손 마디가 썩어 들어가면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기에 끼워 넣는 수저를 만들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한센병에 걸리면 세 번 죽는다고 하였다. 처음은 가족, 친지,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뜻하는 사회적 죽음을, 두 번째는 피부가 산 채로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육체적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한센병 환자들은 죽어서도 묻히지 못하고 해부되는 치욕의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 한센병 환자들의 소원은 토요일에 죽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2일장인 장례 절차에서 일요일은 해부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무지(無知)와 편견, 그리고 비과학적인 상식이 만들어 낸 인간 비극의 종착지가 소록도였다.

소록도에는 한센인들이 직접 지은 병동과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40 여 년을 무보수 자원봉사로, 소록도 할매 '마리안느'와 '마가렛'

바로 이런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 탄압은 해방 후에도 ‘갱생원’이라는 명칭 아래 지속되다 1960년 7월에 이르러서야 국립소록도병원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외 선교 단체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이 소록도로 들어온다.

이 중에서 ‘소록도 할매’라고 불렸던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인 마리안느 스퇴거(1934년생)와 마가렛 피사렛(1935년생)의 봉사 활동은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수녀가 아닌 무보수 일반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40여 년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어울렸다.

특히 맨손과 맨입으로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내고 한센병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며 존대말을 쓰는 등 당시 격리된 채 생활하던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더구나 오스트리아에서도 부유한 의사 아버지를 둔 마가렛의 헌신으로 풍부한 약

품 지원을 받았으며 마리안느를 후원하던 오스트리아 부인회의 경제적인 지원까지 더하여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생활 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40여 년 간 소록도에서 봉사를 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마리아 수녀의 행적을 기리는 공적비. 흔히 '세마비'로 불리운다

이에 국립 소록도 병원은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고통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2016년 개원 100주년을 맞아 한센병 박물관을 소록도내에 개관하였다. 지상 2층 연면적 2006㎡ 규모로 지어진 박물관은 1층에는 수장고와 아트숍, 2층엔 5개 주제(한센병·인권·삶·국립소록도병원·친구들)로 꾸며진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이 있어 소록도를 찾는 일반인들에게 한센인들이 겪어 왔던 힘든 세월을 알려 주고 있다.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에 대한 여행 10문답>

1. 꼭 가봐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여행지야?

- 아름다운 섬이다. 한센인들의 삶과 그들이 거쳐 온 고통이 온전히 느껴지는 공간. 의미 있는 방문지로 적극 추천.

2. 누구와 함께?

- 누구라도. 가족 단위도 좋지만 단체 모임 단위의 견학지로 훌륭하다.

3. 가는 방법은?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 광주, 순천, 여수, 벌교 터미널에서 녹동행 시외버스 이용.

4. 감탄하는 점은?

- 생각보다 훨씬 잘 정비된 공간. 섬 전체 기후가 온화하고 전체적으로 외부인들의 흔적이 많지 않아 섬 자체의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한 공간.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섬이다.

5. 명성과 내실 관계는?

- 명성에 비해 방문객들이 많지 않다. 소록대교가 연결되어 교통편은 수월하다.

6. 꼭 봐야할 장소는?

- 한센병 박물관, 중앙공원, 감금실, 검시실

7. 토박이들이 추천하는 먹거리는?

- 가까운 녹동항에 맛집이 많다. ‘우정식당’, ‘풍년식당’, ‘소담식당’, ‘금일식당’, ‘정다운식당’

8. 홈페이지 주소는?

- http://www.sorokdo.go.kr/sorokdo/board/sorokdoHtmlView.jsp?menu_cd=030101

-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사이트 -> http://recommend.lovemama.kr/ko/

9. 주변에 더 볼거리는?

- 외나로도 우주 과학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고흥우주천문과학관

10. 총평 및 당부사항

- 소록도는 국내 여행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섬 자체도 풍광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조잡스런 외부 시설이 없기에 깨끗한 섬 자체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소록도에서는 인간이 지닌 삶의 환경과 인권에 대해서도 다시금 깨닫을 수 있다. 여행지로 특별 추천!

글·사진 윤경민 여행전문 프리랜서 기자 vieniame2017@gmail.com

★ [나우뉴스에서 '일본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우주 소식 네이버 밴드로 보세요!]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울신문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

서울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18년만에 만난 막장 부녀...연인사이로 발전해 결혼까지
모친 죽인 부자 3명, 23년 후 직접 살해한 아들의 복수극
'완전한 사육'…납치된 여성, 6년 후 정신병자로 돌아와
11살 소녀 임신 충격…범인은 할머니의 60대 동거남
17년간 아빠로 부른 양아버지, 알고보니 친부모 살해범

좋아요 1 | 훈훈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